

여름철 복통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장관감염증 증가, 예방수칙 알고 계신가요?

- 장관감염증 신고환자 수 6월 초 대비 약 2배 증가
- 식당 및 집단급식소 등 다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시설 각별한 주의 필요
- 안전한 여름나기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조리위생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하절기에 세균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장관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위생 및 음식물 조리 시 위생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신고환자 수가 지난 6월 초(23주, 6.4.~6.10.)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최근 3주간 주당 500명 이상의 높은 환자수가 신고 되고 있다(붙임 1-1 참고).

* 20종의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원충) 감염에 의한 위장관증상(설사, 복통 등)을 특징으로 하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208개 의료기관이 표본감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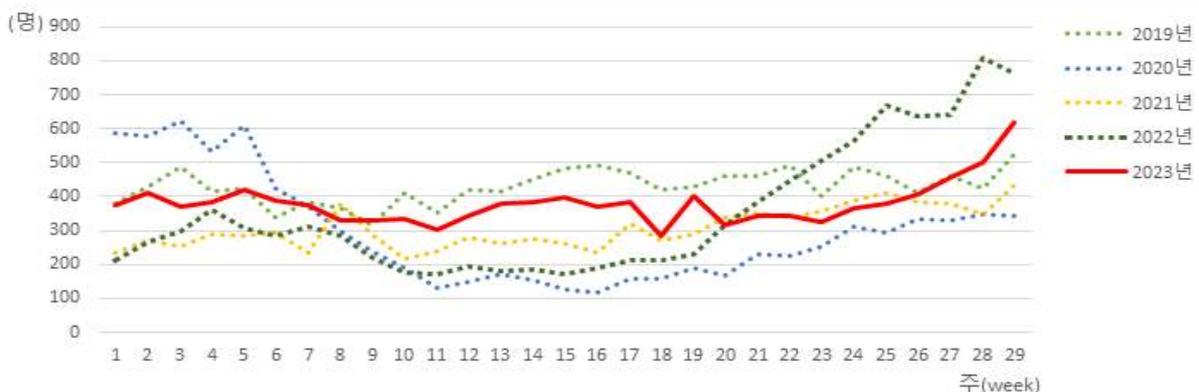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동기간 장관감염증 신고건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요 장관감염증은 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장병원성 대장균 감염증이며, 특히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29주에 전 주 대비 약 63.3% (128명→ 209명)증가하였다(붙임 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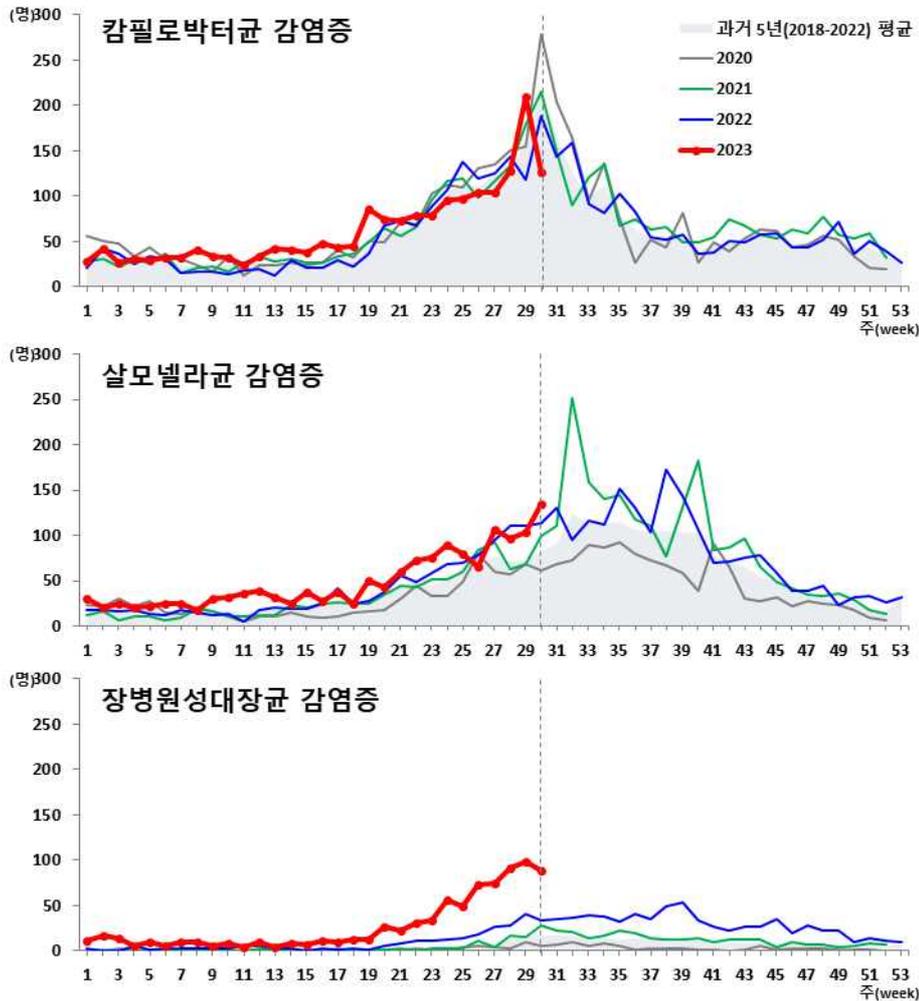


그림 2. 주별 주요 장관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 과거 5년('18~'22년)과 비교

캠필로박터균은 비살균 유제품과 가공류, 살모넬라균은 계란, 우유, 육류 및 가공품, 장병원성대장균은 익히지 않은 육류 및 채소가 주요 감염원으로, 이들 식품의 보관, 손질, 조리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캠필로박터균은 생닭의 표면에 존재할 수 있어, 이를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 보관 시에는 생닭 표면의 물이 흘러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 하단에 보관하고, 식재료 세척 시 가장 마지막에 하되, 씻는 물이 튀어 다른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균은 닭의 체내에 존재할 수 있는 균으로, 산란을 통해 계란을 오염시키거나 껍질 표면에 존재할 수 있어 계란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계란을 구입하여 냉장보관하되, 껍질을 깬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한다.

또한 장병원성대장균은 도축 과정 중에서 육류를 오염시키거나, 덜 숙성된
퇴비 또는 오염된 물로 채소를 오염시킬 수 있어, 여름철에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장관감염증은 여름철 식당과 집단급식소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는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는 장관감염증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별(생선, 육류, 채소 등)로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면 장관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

< 장관감염증 예방수칙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2. 물은 끓여 마시고, 끓일 수 없을 때는 생수 등 병에 포장된 음료수 마시기
3.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중심온도 75°C(특히, 어패류는 85°C)로 1분 이상 익혀먹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6.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도마는 분리 사용하고, 칼, 도마는 조리 후 소독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여름철에는 오염된 물과 식품을 통한 장관 감염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으며,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주요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및 집단발생 현황
 2. 주요 장관감염증 개요
 3. 장관감염증 질의응답
 4. 「카필로박터균 감염증」 질의응답
 5. 「살모넬라균 감염증」 질의응답
 6.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질의응답
 7.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8. 올바른 손 씻기 홍보자료

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책임자	과 장	양진선	(043-719-7140)
		담당자	연구관	박소연	(043-719-7157)
	감염병관리과		연구사	김형준	(043-719-7152)

붙임 1 주요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및 집단발생 현황

□ 1-1. 과거 5년간 동기간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현황(30주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주	381	586	237	211	373
2주	427	579	272	266	413
3주	487	622	251	297	372
4주	414	531	291	362	385
5주	425	611	284	308	421
6주	339	424	292	284	390
7주	385	371	233	311	375
8주	365	296	379	285	329
9주	316	241	289	222	329
10주	412	189	219	177	335
11주	354	129	240	171	304
12주	420	150	279	194	343
13주	414	171	263	182	378
14주	453	152	275	184	383
15주	481	128	263	172	399
16주	492	116	233	188	371
17주	468	160	322	212	386
18주	420	156	272	211	286
19주	429	190	289	230	403
20주	460	165	339	316	317
21주	459	229	350	385	343
22주	491	228	338	448	342
23주	404	253	356	504	323
24주	488	311	387	566	365
25주	460	295	410	668	378
26주	411	334	385	637	408
27주	460	331	381	640	457
28주	424	347	349	807	501
29주	522	341	434	762	619
30주	464	454	518	849	598

* (장관감염증 20종) 살모넬라균 감염증(이하 감염증 생략), 장염비브리오균, 장독소성 대장균, 장침습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캄필로박터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알균,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이질아메바, 람블편모충, 작은와포자충, 원포자충

□ 1-2. 주별 주요 장관감염증 신고건수

신고 주	명	캠필로박터균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병원성 대장균감염증	신고 주	명	캠필로박터균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병원성 대장균감염증
19주 (5.7.~5.13.)	86	50	13	25주 (6.18.~6.24.)	97	79	49		
20주 (5.14.~5.20.)	75	43	26	26주 (6.25.~7.1.)	104	65	73		
21주 (5.21.~5.27.)	73	60	23	27주 (7.2.~7.8.)	104	107	75		
22주 (5.28.~6.3.)	79	72	31	28주 (7.9.~7.15.)	128	96	92		
23주 (6.4.~6.10.)	79	76	34	29주 (7.16.~7.22.)	209	104	98		
24주 (6.11.~6.17.)	96	89	56	30주(잠정) (7.23.~7.29.)	127	134	89		

□ 1-3. 월별 집단발생현황

(단위: 건(명))

월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	사례수	발생건	사례수	발생건	사례수	발생건	사례수	발생건	사례수	발생건	사례수
합계	691	13,033	600	7,659	234	3,323	470	7,900	493	7,443	358	5,696
1월	28	178	48	503	40	274	17	249	29	318	52	576
2월	32	318	35	275	10	107	28	530	14	179	56	602
3월	61	1,334	56	988	3	25	55	853	11	377	49	742
4월	47	848	67	1,019	11	127	69	902	29	337	59	1,269
5월	62	1,213	72	873	7	22	50	653	58	1,039	46	1,174
6월	51	1,068	66	952	20	520	57	677	70	1,409	47	454
7월	69	979	58	772	42	719	42	1,159	87	990	49	879
8월	50	1,586	48	517	27	311	49	1,166	45	512	-	-
9월	95	2,787	48	308	17	192	33	493	38	749	-	-
10월	79	970	29	344	15	222	21	393	26	465	-	-
11월	62	880	35	577	20	590	21	263	38	434	-	-
12월	55	872	38	531	22	214	28	562	48	634	-	-

* 2022, 2023년 현황은 잠점통계로 변동가능(2023.7.29. 기준)

□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정의	· 캄필로박터균(Campylobacter jejuni, Campylobacter coli)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질병코드 : ICD - 10 A04.5
병원체	· Campylobacter jejuni, Campylobacter coli - 그람 음성 막대균으로 가느다란 나선형 - 배양 배지에서는 구형이나 섬유소 형태
병원소	· 가금류와 소를 포함한 동물, 개, 고양이, 돼지, 양, 설치류, 새 등
전파경로	· 오염된 음식이나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을 통해 전파 ·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잠복기	· 1~10일(대부분 2~5일)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 구토물)에서 캄필로박터균 분리동정
증상	· 발열, 권태감이 설사 1~2일 전부터 발현할 수 있음 · 설사, 혈변, 복통, 권태감, 발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일주일까지 지속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 항생제 치료 : 고열, 혈성 설사, 심한설사 증상이 심할 경우
치사율	· 대부분 회복, 사망은 드물
관리	· 환자관리 : 증상 있을 시 음식 취급, 보육·요양시설 종사, 의료종사 제한 권고, 장내배설물에 오염될 물품 소독 ·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예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 살모넬라균 감염증

정의	·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non - typhoidal Salmonella)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질병코드 : ICD - 10 A02
병원체	· Non - typhoidal Salmonella spp. - S. Enteritidis, S. Typhimurium, S. Newport, S. Javiana, S. Heidelberg 등 - 살모넬라균속은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그람음성 막대균 (보통 $10^2 \sim 10^3$ 이상 개체수에서 감염)
병원소	· 가금류, 돼지, 두더지, 소, 와 같은 가축과 야생동물, 이구아나, 거북이, 개, 고양이, 햄스터 등 애완동물이 주 병원소 · 사람은 보균자, 환자 등이 병원소가 될 수 있음
전파경로	·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에 접촉하여 감염
잠복기	· 6~72시간(대부분 12~36시간)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에서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분리 동정
증상	·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증상 · 수일에서 일주일까지 지속
치료	· 대중 치료: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 항생제 치료: 중증, 노약자, 어린이, 면역 저하자에게 권유
치사율	· 대부분 회복, 사망은 드물
관리	· 환자관리: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조리종사자, 간호, 간병, 의료 종사자에서 업무 제한 권고 · 접촉자격리 : 발병여부 관찰(3일)
예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특히, 동물·애완동물을 접촉 후 등)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정의	· 장병원성대장균(Enteropathogenic Escherichia coli)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질병코드 : ICD - 10 A04.0
병원체	· Ente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그람음성 막대균
병원소	· 사람
전파경로	·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잠복기	· 1~6일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에서 부착인자 유전자(eaeA, bfpA)를 가진 E. coli 분리 동정
증상	· 구토, 설사, 복통, 발열 · 어린 소아에서 중증의 수양성 설사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 항생제 치료 : 설사 지속 시 고려
치사율	· 대부분 회복, 사망은 드물
관리	· 환자관리 : 증상 있을 시 음식 취급, 보육·요양시설 종사, 의료종사 제한 권고, 장내배설물에 오염될 물품 소독 ·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예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붙임 3 장관감염증 관련 질의응답

1. 장관감염증이란 무엇인가요?

-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2. 장관감염증에 해당하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장관감염증은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다음의 20종이 해당됩니다.

구분	종류
세균 (11종)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바이러스 (5종)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원충 (4종)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장관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장관감염증은 오염된 물과 음식물의 섭취 시 주로 감염되고, 환자 또는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파리와 같은 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4. 장관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관감염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의 위생수칙을 생활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생활화 -
- 2. 물은 끓여 마시고, 끓일 수 없을 때는 생수, 탄산수 등 병에 포장된 음료수 마시기
- 3.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중심온도 75℃(특히, 어패류는 85℃)로 1분 이상 익혀먹기)
-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 6.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7.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도마는 분리 사용하고, 칼, 도마는 조리 후 소독

5. 장관감염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관감염증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표본감시기관인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의사는 당국에 환자 발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들 중 2명 이상에서 장관감염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이 발생한 경우 집단발생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집단발생의 경우 반드시 의료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발생한 식당업주, 증상발현자 또는 집단발생을 목격한 경우 등 누구나 가까운 관할지역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1

캠필로박터 감염증(Campylobacteriosis)은 무엇인가요?

답변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설사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Q2

캠필로박터 감염증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캠필로박터 감염 환자는 발열 및 복부 경련이 있으며, 설사와 함께 메스꺼움과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노출 후 2~5일 이내에 시작되며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일부 감염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예: 혈액 질환에 의한 지중해 빈혈이나 저감마글로불린혈증, 에이즈 또는 일부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치명적 일 수 있습니다.

Q3

캠필로박터균 감염증은 어떻게 물과 음식을 오염시키나요?

답변

가축을 포함한 동물은 캠필로박터균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의 장, 간 및 내장에 존재하여 동물이 도살되면 다른 식품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는 소의 유방에 캠필로박터균 감염이 있거나, 분뇨로 인해 오염될 수 있으며, 동물의 배설물이 토양 혹은 호수와 하천의 물을 매개로 과일과 채소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Q4

캠필로박터균 감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답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주로 가공 전 가금류 또는 관련 축산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가금류 손질시 도마를 세척이나 소독 없이 야채나 과일과 같이 사용할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나 고양이의 대변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캠필로박터균은 사람 간 전파는 거의 하지 않으나 드물게 수혈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Q5

캠필로박터 감염증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캠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의 5~20%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1~5%는 관절염, 0.1%는 길랑-바레 증후군(GBS)을 일으킵니다.

Q6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부분 특별한 치료없이 회복하나, 설사가 지속되는 환자는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을 보충합니다.

항생제는 혈액 질환에 의한 지중해 빈혈 및 저감마 글로불린 혈증, AIDS 또는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들과 같이 면역체계가 저하된 환자에게만 필요합니다.

Q7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섭취 또는 조리 전)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십니다.
 3.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4.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5.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Q1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무엇입니까?

답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non - typhoidal Salmonella)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Q2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답변

주로 균 감염 6~72시간 후 경련성 복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의 증상을 보이며 며칠간 설사가 지속되어 이로 인한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게 소변, 혈액, 뼈, 관절, 뇌, 중추신경계로 침습적 살모넬라감염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답변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로 날달걀, 덜 익힌 달걀 및 달걀 가공품, 오염된 육류, 육류가공품이 감염원인 식품이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을 접촉하여 감염이 가능합니다. 또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를 통한 분변 - 구강 경로로 감염이 가능합니다.

Q4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치료방법은 있나요?

답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5~7일 후에 회복되며,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한 설사, 심한 병증,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영아나 65세 이상, 면역저하자는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Q5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답변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섭취 또는 조리 전, 동물이나 애완동물을 만진 경우)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십니다.
3.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4.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5.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Q1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병원성대장균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입니다.

Q2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답변

병원성대장균 감염증은 발열, 복통, 구토, 설사(수양성 혹은 혈성)등의 장관 감염증상을 나타냅니다.

Q3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답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분변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장병원성대장균은 어린아이가 균에 오염된 분유, 이유식 등을 섭취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Q4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은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신속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항생제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중증인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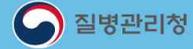
Q5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은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섭취 또는 조리 전)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십니다.
3.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4.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5.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2022. 5. 27.



여름철,
꼭 지켜주세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01. 올바른 손씻기 6단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0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03



물은 끓여 마시기

0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0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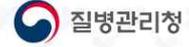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07



생선·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
칼, 도마는 조리 후 소독하기

2022.8.18.



손을 비비삼

손을 비누로 비벼요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손바닥
- 손등
- 손가락 사이
- 두 손 모아
- 엄지 손가락
- 손톱 밀